

21세기는 여전히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Guy Sorman

본인은 신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신보수주의는 미국의 전통에 깊숙이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보수주의는 미국의 역사, 가치 그리고 종교와 관계되어 있다. 본인은 이에 대해 반대할 어떤 이유도 없다. 또한 많은 저서에서 본인은 무엇이 신보수주의 인지를 분석해 보려고 시도해 왔다. 본인은 프랑스 학자이며, 프랑스에는 미국과 같은 전통이 없다. 종교는 프랑스의 정치와 지성 분야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이 없다. 19세기 토크빌(Tocqueville)과 같은 저명한 학자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본인은 자신을 단지 18세기에 발전한 오랜 경제적, 지성적 및 정치적 전통을 겸손하게 이어 받으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인에게 신보수주의는 다소 외래적인 것이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겠다. 오늘 아침 본인이 입증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왜 미국경제가 지금 1세기 이상 세계경제를 주도하는가이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겠으며, 이러한 근거가 앞으로 수년간 도전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명료하고 간결한 9가지 항목을 열거하겠으며, 또한 두 번째 부분에서 더욱 간략하게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새로이 부상하는 국가의 장점 그리고 유럽의 상황을 미국의 장점과 비교·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장점 등 미국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도 알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이 놀랄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으며, 다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항목은 저명한 경제학자 슈페터(Schumpeter)가 “파괴적 창조(destructive creation)”의 국가라고 일컬었던 미국이 번창하고 동태적인 경제국인 근본적 이유이다. 파괴적 창조란 무슨 뜻인가? 기업이 일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수익을 올리지 못하며 전망이 없을 때, 그 기업은 소멸하여 대체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혁신에 대한 태도이다. 기업이 혁신이나 경쟁으로부터 위협받을 때 유럽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 기업을 보호하고 보조하여 가능한 장기간 존속토록 노력하는 것이다. 미국의 태도는

* 이 글은 2007년 10월 4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으로 필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정반대이다. 우선 그 기업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런 다음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슈페터의 주장은 미국이 파괴적인 경제국이기 때문에 매우 창조적인 경제국이라는 것이었다. 외국인들은 파산하는 미국 기업들을 보면서 범아메리카주의(Pan Americanism)가 소멸하여 주요 기업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자동차회사를 인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미국인의 시각에서는 좋은 발전이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것은 그럴 만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보호나 보조를 통해 언제나 잠정적으로 인식되며 영원한 산업구조의 일부도 아닌 기업을,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유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미국인은 아무런 향수가 없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물론 이 “파괴적 창조”란 개념은 법적 및 정치적 여파가 있다. 법적인 여파 가운데서 미국은 파산법의 중요성을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기업의 진입이 수월해야 하지만 기업의 퇴출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여타국을 비교해보면, 예컨대 유럽과 많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적·금융적으로 기업설립이 훨씬 용이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것 또한 쉽다. 그래서 파괴적 창조란 과정에서 파산법은 미국경제 내 유연성의 핵심요인이다. 파산법이 경제동태성의 주요 수단으로 고려되는 나라는 미국뿐인 것으로 생각되며, 파산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경제동태성의 계기나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다 널리 알려진 두 번째 항목은 미국에는 경제와 정치가 연관된 모든 것에 확실한 구분이나 장벽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비정치화된 경제국으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주요한 경제정책상의 결정이 정치적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로비활동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비정치화된 경제국이다. 기업의 전략은 어떤 정치적 연계성 없이 심의되고, 미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적체계 및 금융기관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독립성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설명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인데, 국가기관은 경제정책이란 측면에서 정치적 개입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에 경제부 장관이 없다는 것이 매우 특이한데, 경제부 장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국가가 경제에 개입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을 미국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경제부 장관이 있다 해도, 장관이 경제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없다. 그러므로 정부기관의 경제정책적 결정과 정치적 결정 사이에는 분명한 구별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쟁적 성향을 설명하는 세 번째의 항목은, 미국이 세계에서 세금부담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다. 예컨대 다시 유럽과 비교해 보면,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 유럽

은 정부지출 비중이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2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의 정부지출 비중은 GDP의 30% 미만에서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1950년과 거의 비슷하며 GDP의 25%를 밑돈다. 예산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지출 항목이 없다. 예를 들어 군사비 지출의 경우는 대폭 감소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대에는 군사비 지출이 예산의 거의 반을 차지했다. 현재는 이라크 전쟁으로 군사비 지출이 GDP의 3%를 차지한다. 군사비 지출은 하락했지만, 복지지출은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1950년에는 거의 없었던 복지지출이 오늘날 주요지출 항목이며, 이것은 앞으로의 예산과 미국경제에 위협요인이다. 복지예산을 증가시키라는 정치적 요구와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퇴직연령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유럽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연금 및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은 매우 작은 예산규모와 조세부담이지만 장래에는 상이한 인구변동과 정치적 요구 때문에 작은 정부의 유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이 재정균형을 유지하는데 큰 위협 요인이다.

넷째, 비교우위 면에서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매우 유연한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 노동시장이 유연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이민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거의 무한적이기 때문이다. 매년 미국에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반은 합법적, 나머지 반은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자들이 불변의 노동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 불변의 노동공급 때문에 미국의 임금은 예컨대 서유럽보다 비교적 낮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보장 규모도 매우 작기 때문에 노동요소에 대한 세금 또한 매우 적다. 이것이 그리 현대적이거나 첨단적이지 못한, 또는 전혀 첨단적인 서비스를 갖추지 않은 다수의 산업이 미국에서 잘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섬유 또는 전자 분야의 많은 기업들에게는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매우 이상하게 보이지만 남가주 지역에 매우 저급한 수준의 섬유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이 왜 중국에 이전하지 않는지 의아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노동이 저렴하고 노동법이 유연한 결과로 미국에서 탈산업화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20여 년 전 탈산업화란 논의가 미국에서 무성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고 미국은 여전히 산업국가의 하나이다. 경제이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국 노동시장이 가진 또 다른 유리한 측면은 근로자의 생산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매우 용이하다. 이것이 유럽과 크게 다른 본질적 문제이다. 미국은 또한 노사분규가 적은 나라로서 파업건수가 적고 파업기간이 짧으며, 파업은 흔히 운송부문이나 혹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동차 같은 특정부문에 국한되어 있다. 미국 자동차 부문이 높은 임금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매우 특유한 분야를 역사적인 이유로 제외하면, 미국 노

동시장은 비교적 유연한 노동시장, 비교적 저렴한 임금 그리고 빈번하지 않은 노사분규로 특징된다.

다섯째,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와 유가상승에 관한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그다지 에너지 의존적이지 아니며, 의존도 또한 줄어들 것이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 미국도 여타 선진국처럼 생산량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 구축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설, 새로운 건물들의 에너지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는 유가상승이 미국의 경제성장에 충격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1973년의 상황을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1973년의 유가상승은 구미경제를 붕괴시켰지만 오늘날은 아무 일도 없다. 실제로 유가상승이 아무런 충격을 주지 못했다. 심지어 유가가 더욱 상승해도 미국에게는 대체 가능성이 많다. 미국에게는 석유가 있고, 상대적으로 비싸거나 환경그룹의 반대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 가스가 있으며, 준비가 크게 덜된 상태이긴 하나 원자력에너지 시설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위한 새로운 핵에너지 시설의 건설에 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공급의 문제라면 상당한 유연성이 있다. 미국은 가격이든 생산량이든 그다지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여섯 번째 항목은 미국 달러이다. 미국 달러는 기업가, 차입자를 불문한 모든 미국인에게 커다란 이점(利點)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돈을 차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자금공급이 풍부하고 무한하다. 이 때문에 금리도 비교적 낮다. 이는 달러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준비통화인 달러와, 미국경제의 성장 요소인 저금리 자금의 차입 용이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가? 준비통화로서의 달러가 사라질 것인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통화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든 유로화든 어떤 단일통화도 미국 달러를 대체할 입장에 있다고 말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 나라의 통화가 준비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게 준비통화 요건을 궁극적으로 보증하는 긴 역사가 있어야 하고 시장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 은행조직 역시 안전성이란 측면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재무부 채권도 마찬가지이다. 유로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직도 일천하며 유럽 내에서까지도 매우 논란이 많다. 그러므로 준비통화를 달러에서, 알지도 못하고 예측할 수도 없는 통화로 바꾸기 위해 투자가가 움직인다는 것은 그리 내키는 일이 아니다. 물론 중국 위안화를 준비통화로 고려한다는 것은 한층 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외가치의 기복과 완전한 예측 불가능성 등 수년간 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달러에 대한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가진 국제통화의 역할이 아직은 위협받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인에게 엄청난 금융상의 이점을 주고 있다. 미국의 어느 경제전문가는 미국 경제성장의 매년 1%가 달러를 준비통화로 가진 특권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특권이 투자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용이한 자본시장 접근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곱 번째 항목으로, 25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미국 경제의 특징 중 하나는 독점이 미국 내에서 상당히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지난날의 법적 제재조치와 독점과괴는 1980년대 초에 종지부를 찍었다. AT&T는 중대한 법적 판결로 붕괴된 대형 독점기업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 모든 주요 기업들은 이러한 종류의 법적 조치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다. 가장 좋은 사례가 Microsoft사이다. 미국의 제도는 한 기업이 미국에서는 독점기업이더라도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독점의 정의가 변하고 있다. 매우 편리하다. 과거에는 독점이었던 기업을 지금은 파괴할 이유가 없다. Microsoft사가 미국의 법적 심판은 피하고 있으나 유럽의 법적 심판에는 저축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엄청난 벌금 납부와 운용의 해체를 강요하는 EC(European Commission) 및 유럽의 법적 체계로 인해 Microsoft사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것은 유럽의 판결이지 미국의 판결이 아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항목이다. 모두 아홉 개 항목이므로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다. 여덟 번째 항목이지만 이것은 중요하다. 미국 고등교육의 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이 혁신을 창출하는 주도국이란 점을 이해 못하면 미국의 동태적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 아이디어는 경제적 자산으로 변형될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가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미국 대학교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미국이 가진 경제적 우위 요소 단 하나를 본인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대학교육이다. 미국의 대학교육이 매우 우수하고 경쟁적이며, 그리고 매우 비싸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미국의 대학교육이 매우 비싼 이유는 고등교육 비용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세계도처에서 최고의 학생과 최고의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투자이며, 아시다시피 거의 모두 민간투자이다. 왜 학생들이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연간 5만 달러의 등록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훌륭한 투자이며, 그 투자로부터 얻는 수확이 매우 높을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경제의 경우 교육이 주는 프리미엄이 매년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회관찰자들은 미국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간다고 한다. 사실 그러하다. 상위층의 사람들이 더욱더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교육에 투자를 하여 교육의 큰 배당 프리미엄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소득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사회정책이나 분배정책이 아닌, 보다 뛰어난 교육제도에 더욱더 투자한다.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할 일이 많다. 이것이 관건이다. 미국 이외의 여타 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고도의 투자 및 경제와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지는 본인으로서도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잘 알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 학생은 할 수 있다면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항목이다. 지난 30년 이래 미국경제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 중 하나가 경기순환은 있으나 경기침체가 없다는 점이다. 본인도 확신할 수는 없으며 경제전문가도 예측하기 싫어하지만, 미국이 경기침체를 경험할 징조는 거의 없다. 기술상의 중대한 변화 등 객관적인 이유로 경기순환은 있다. 기존 산업분야에서 혁신분야로 경제가 이동할 때 경기순환을 야기하는 객관적인 원인이 된다. 최근에 우리가 목격한 바와 같이 금융부문이 오류를 범할 때 경기순환이 초래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경기순환은 경기침체가 아니다. 미국경제를 장기적 추세 측면에서 보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연방준비은행의 에드워드 프레스캣(Edward Prescott) 교수가 상술하는 바와 같이, 미국경제의 성장은 바로 19세기 말엽에서 시작하여 그 이후로 사실 혁신과 성장이란 면에서 지배적인 경제가 되었다. 이 추세를 연간 기준이 아닌 장기적 추세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연간 2%가 된다. 한 세기 동안 매년 2%의 성장률과 4%의 투자수익률은 부국을 만든다. 이것이 미국경제의 핵심적 수치이다. 어떤 국가도 장기간 이처럼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 본인이 미국경제의 동태성에 위협이나 혹은 변동을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경쟁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다. 우선, 유럽과 미국 사이의 경쟁을 이야기 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미국과 유럽은 전시상태에 있지 않으며, 같은 문명을 나누고 있고, 두 대륙의 대다수 기업들이 범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대의 세계화된 경제에서 국가 대 국가의 적대관계란 개념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특히 유럽의 경우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적대관계를 마치 두 명의 전사가 대결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양국은 매우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국을 제외한 유럽은 성장, 혁신 그리고 고등교육면에 있어서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심각한데, 인구변동적인 측면과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방법과 관계가 있다고만 거론해 두고자 한다. 결정적인 요인은 전 유럽에 적용되고 있는 복지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2차대전 후 유럽은 복지분야, 의료보험, 연금 및 사회보장에 대규모 자금을 집단 지출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피해가기로 결정한 일종의 정치적 및 사회적 선택이다. 유럽은 선택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는 이 사회적 선택 때문에 하나의 상충관계(trade-off)를 유발시켰다. 즉, 개선된 복지제도를 갖게 되면 성장은 줄어든다. 왜 성장이 줄게 되는가? 복지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하고 정부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보다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충관계에 놓여 있다. 물심양면의 이익을 전부 가질 수는 없다. 매우 훌륭한 복지제도와 고도성장의 경제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미국과 같은 고도성장 경제를 성취하려면 빈약한 복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적 선택이 다르면 그 결과도 다르다. 유럽의 각국 정부, 예컨대 영국이나, 독일의 슈뢰더(Schroeder) 총리, 이탈리아의 프로디(Prodi)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Sarkozy) 대통령이 생산적인 부문과 비생산적인 부문의 균형을 약간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의 반을 복지에 지출하는 나라와, 미국처럼 생산의 1/4을 복지에 지출하는 나라 간의 차이는 매우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이란 측면에서 유럽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상이한 국가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미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경쟁자가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중국은 몹시 빈곤한 국가이다. 매우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중국은 아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1940년 및 1950년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성장률과 비교하면 이러한 성장률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대만이 과거에 이룩한 것보다 나은 것이 없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매혹적인 것이나 새로운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양상이란 단지 규모이며, 중국이 저가품목의 수출주도형 경제란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것은 누구에게도 위협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저가생산 때문에 더욱 잘 살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섬유나 전자제품에서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락하고 있다. 중국의 부품이 생산과정에 투입되면 항상 생산비용이 감소한다. 이렇듯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가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비용이 수입국의 생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방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이 이 모든 저가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물가를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가 수출품이 가져오는 혜택이 언제나 좋게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분야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멕시코나 방글라데시의 섬유제품 생산자는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파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저가경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 제품보다 더욱 세련되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섬유부문에 크게 진출하고 있는 신흥공업국

중 하나인 터키는 중국이 수출하는 저가 섬유제품의 경쟁에 대응하여 더욱 세련된 섬유 제품으로 진출하고 있다.

중국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극제이다. 중국의 성장은 중국과 세계를 위해서도 좋다. 그러나 빈곤과 저수준에 있는 중국이 세계의 주도국이 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중국은 매우 예측 불가능한 나라이다. 중국에는 예측 가능한 경제기관, 재산권의 보호, 독립적인 사법기관, 그리고 시스템 자체의 안정성을 보증하는 정치제도가 없다. 어떤 중국인은 덩샤오핑(Deng Xiaoping) 주석 이래 지금까지 계속 현명한 지도자를 갖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국의 지도자 선출절차가 반드시 현명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절차로 이어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음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또 중국의 경우, 지도자가 국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었지 대중이 인정한 것은 아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경제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진정 중국을 알지 못한다.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보면, 인도는 지금 정확하게 중국과 같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약 10%, 인도는 9~10% 사이로, 경제성장면에서 같다. 그렇다면 본인이 인도를 세계경제의 위협적인 존재로, 그리고 차기의 세계적 주도국으로 보는가? 역시 그렇지 않다. 인도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1세기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중국과는 다른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보다 국내지향적인 관계로 수출지향적인 면은 덜하지만 한층 안정적인 성장국가이다. 중앙집권적인 면은 중국보다 덜하며, 중소기업에 더욱 기울어져 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혼란 역시 덜하며 정치적 공감대에 기초하고 있다. 현재 인도의 모든 정당이 향후 10년간을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국가전략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는 매우 예측가능한 국가이다. 중국은 예측가능성이 인도에 비해 떨어진다. 경제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두 나라는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빈곤국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준평을 한다면, 본인이 이 지역에 왔을 때 강하게 받은 인상 중 하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이 중국과 인도에 너무 집착하여 일본을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일본이 지난 10년간의 매우 더딘 성장으로 인해 경제 약소국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인은 일본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경제적인 면에서의 주도국은 중국과 인도가 아닌 일본이라 생각한다. 중국에 관한 논의는 사실상 중국이 가진 문화적 매혹성과 그 규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제패권이란 면에서의 중국은 앞으로 오랜 기간 약소국으로 남을 것이다.

질의·응답

[질문] 무역적자 및 예산적자 등 현재의 미국 적자문제에 대한 귀하의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10년 또는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답변] 귀하의 지적이 옳다. 적자가 10년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한다. 적자가 지속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미국경제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것이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재정적자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으며, 재정적자와 미국경제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다. 따라서 사실상 이는 경제적 도전이 아니라 정치적 도전이다. 적자문제는 “재원운영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 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재정적자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재원이 조달될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신용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며, 이러한 신용은 매우 신뢰할만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국에서 차입한 신용을 통해 재원이 보전되는 한 긍정적이다. 만약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등이 미국에서 자금을 회수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일종의 자살행위라는 것을 이들 국가는 알고 있다. 그들은 미국경제의 파산으로 인한 첫 번째 희생양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각국 중앙은행 지도부는 매우 현명하다. 그리고 모든 주요국 수장들이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다. 미국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는 중국과 일부 아랍국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숙지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에 대출하는 것은 안전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미투자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이다.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안전성이다. 자금이 갑자기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전한다고 해도 그 자금은 갈 곳이 없다. 미국의 제도는 안정적이다. 본인은 미국이 안정적인 곳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교환(무역)상의 적자에 관한 것도 거의 같은 이야기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세계를 위해 매우 유익하다. 중국이 번창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무역적자 때문이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는 미국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은 중국산, 한국산, 인도산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국가가 번창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부상조 관계에 만족해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소비자의 생계비용이 낮아지고 중국 생산

자의 생계가 좋아진다. 모든 사람들이 상충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대혼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큰 혼란이 일어나서 지금처럼 달러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미국은 수출을 더욱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중국에게는 재앙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상호의존적이며, 쌍둥이적자는 바로 상호의존성의 일부이다. 이것은 국가 간 순환적 상호의존성과, 모든 나라들이 주도국에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주도국은 적자를 기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무역적자가 개도국에게는 수출 원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귀하의 발표에 진정 감사드린다. 본인의 질문은 간단하다. 귀하는 경제동태성과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EU를 비교했다. 그리고 성장과 복지라는 측면에서의 불가피한 상충관계도 언급하였다. 본인의 질문은, 오늘 태어난 귀하에게 어떤 나라의 시민권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면 어느 국가를 택하겠는가?

[답변] 매우 좋은 질문이다.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미국제도를 선호할 것이나, 젊은 사람이 아니라면 유럽제도를 선호할 것이다. 귀하가 60대 연령층이라면, 귀하의 자녀들이 연금을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유럽제도가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자녀들은 귀하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다.

인구변동은 매우 중요한 설명요인이다. 인구가 노령화하면 정치적 균형이 연로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져, 정부는 대다수가 있는 곳에 눈을 돌린다. 대다수가 노령층으로 구성되었다면, 정부는 매우 좋은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를 통해 노령층을 만족시키려고 한다. 서방세계의 전체적인 인구변동구조는 노령층 인구비중의 증가인데, 이는 청소년층 인구에게 매우 좋지 않다. 경제동태성보다 복지선호를 선택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충관계로 집약된다. 경제문제는 언제나 상충관계이다. 어떤 조직도 완전하지는 않다.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을 비판할 때, 유럽이 충분히 동태적이지 못하다고 한다. 옳은 지적이다. 유럽인들은 성장을 뒷전으로 하고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미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없으며 공적보험도 없다고 한다. 이것 역시 옳다. 그러나 미국은 경제성장을 누리고 있다. 경제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덜 나쁜 해결안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질문] 귀하께 한 가지 의견이 있다. 본인은 4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번 주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오늘 귀하의 강연에 참석하게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9개 항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40년간 미국에 살아온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다. 개인적 수준과 아울러 제도적 수준에서 부여되는 미국의 경제적 관용이다. 이것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많은 프랑스인이 영어사용을 싫어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프랑스인들이 미국 자체를 좋아 하지 않아 그런지도 모르겠다. 오늘 귀하는 미국이 21세기에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력한 경제력 외에, 귀하께서 영어를 하고 미국을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답변] 본인은 불어를 항상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자리에 계신 주한 프랑스대사께서 이를 확인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인들은 프랑스어가 세계 언어가 되기를 간곡히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프랑스어만 하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인 발표자만 초대된 시절도 있었다. 요즘은 심지어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콘텐츠(content)라는 점을 우리는 더욱더 이해하고 있다. 귀하가 영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를 이해하는 것이, 불어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편보다 낫다. 그래서 대다수의 프랑스 정치인, 지성인 그리고 교육계 인사들이 영어가 국제적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사용을 선택한다. 영어는 더 이상 어떤 특정 국가에게 속하지 않는다. 인도에 가보면 인도인들은 영어가 자신의 언어라고 생각하면서 “가엾은 영국인들은 이제 소수에 속한다.”, “그들은 이상한 영국식 억양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영어는 국제적 언어이다. 이는 매우 바람직하며,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국경을 넘어 어디서나 영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와 번영이 언어를 통해 교환된다는 측면에서 국제어로서의 영어는 거대한 인적, 경제적 및 문화적 편의이다. 영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미국에 대한 프랑스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자면 이것은 매우 오래된 이야기이다. 뚜렷한 차이점 한 가지를 간단히 지적하겠다.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미국을 좋아한다. 프랑스인은 미국 문명에 매료되어 있으며,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할 수 있다면 미국에 유학하고 싶어 한다. 전쟁기간 중 미국과 프랑스는 주요 동맹국이였다. 그러나 반미주의 사건도

있다. 반미주의는 출판, 수사학, 정치적 행위, 신문의 논단 등을 만들어 내는 일종의 문화적 또는 정치적 산업이다. 이러한 종류의 산업은 미국을 하나의 실제적 국가로 보는 것과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식별이 있어야 한다. 반미주의는 하나의 이념 그 자체로서만 보아야 한다. 심지어 미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의 이념으로서 반미주의가 역시 있을 수 있음을 본인은 가끔 이야기한다.

[질문] 어제 만찬에서 프랑스 정치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새로 취임한 사르코지(Sarkozy) 프랑스 대통령은 지금 독일의 메르켈(Merkel) 총리 하에서 일어났던 폭넓은 시장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중요한 두 개의 유럽 국가가 영국형 시장지향적 경제의 어떤 장점을 채택하거나 적어도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국가주도적인 사회시장경제체제와 모든 자비로운 사회복지 등에 익숙해 있는데,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이 점에 관해서는, 귀하가 오늘 태어난다면 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Anglo-Saxon)모델 중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는 현재의 1인당 소득수준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이 이러한 지적하는 이유는 대다수 사람들이 유럽제도가 좋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거운 조세부담을 질 의사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 1인당 소득이 높지 않으며 갈 길 또한 멀다. 1인당 소득수준이 이미 40,000달러 이상이라면, 복지지출에 기울어진 유럽모델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유럽모델을 추구할 경우, 한국경제는 충분히 강력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며, 그 결과 한국은 오늘날 유럽경제가 달성하고 있는 수준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인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도 자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혁신패키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무엇인가?

[답변] 세금과 성장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은 지금 이해되어 있고, 또한 모든 경제전문가와 정부 사이에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세금이 높으면 성장은 낮다. 정부지출과 경제활성화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본인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주도적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정부지출은 소비수요를 창출한다고 생각했던 30년 전에는 이 관계가 자명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지출은 소비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 정부지출로 유효수요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든 실패하고 말았다. 조세수준이 성장수준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이제는 명백하다.

그래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고, 메르켈 현 총리와 슈뢰더(Schroeder) 전 총리가 한 일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담세수준을 줄이는 일이다. 문제는 감세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복지수당)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동 면에서 프랑스는 노령화하는 국가이다. 앞서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감세조치에는 정치적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조세부담을 낮추어 복지지출을 삭감할 수 있으나, 복지지출의 축소 없이는 조세부담을 줄일 수 없다. 모든 것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아마 사르코지 대통령이 앞으로 할 일과 독일 정부가 시도한 것은 복지지출을 약간 삭감하여 경제활성화(성장)에 좀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균형을 바꿔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제도를 미국제도로 이행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정책노선은 그렇게 간단히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개혁조치가 단행되기 전의 독일은 경제성장률이 1.8%였으나 그래도 충분하였다. 지금은 0.5% 높은 2.3%이다. 이러한 성장률이 고도성장에 익숙한 한국인의 시각에서는 터무니없이 보이겠지만, 유럽의 경우는 이미 매우 부유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 성장률을 0.5% 제고시킨다는 것은 1년 내에 실업률을 0.5%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독일이 그렇게 하고 있다. 시스템 자체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 일종의 신중한 소규모 개혁을 통해 시도하는 것이다. 즉 제도의 대변혁 없이 기존 시스템을 보다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서유럽 각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진단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면, 성장은 무너질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조세부담을 축소시키면 복지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사람들은 반항할 것이다. 문제의 진단은 명백하지만 해결책은 매우 복잡하다. 그 이유는 의회 의원을 지지해 찬성표를 던진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하고, 여타 주민의 저항을 피하여야 하는 매우 복잡 미묘한 정치적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프랑스는 신중한 공급친화적 변혁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관련하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등교육 분야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본인은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스 국민들에게 계속 끈질기게 건의하며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미국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이란 것은 없다. 대신에 프랑스 고등교육은 효율

적이지 못하며, 그렇게 경쟁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프랑스는 자유시장 개혁조치와 고등교육 부문 내에 민영화를 도입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장래에 주도국 중 하나로 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질문] 시야를 넓혀주는 귀하의 강연에 감사드리며, 중국경제에 관해 질문하겠다. 중국의 GDP 규모는 세계 3위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 또는 2040년에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귀하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도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17세기의 세계 최대경제는 중국경제였다는 점을 귀하께 상기시키고 싶다.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가 되면, 초강대국인 미국의 위치에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

[답변] 덩치가 크다고 해서 행동이 민첩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물론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경제의 혁신능력은 본인을 때려시키지 못하고 있다. 혁신 혹은 브랜드 혁신이란 측면에서 중국이 한국, 일본, 서유럽과 미국을 능가할 날까지 본인은 기다리겠다. 얼마나 많은 세계적 브랜드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가? 전혀 없다.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관해 많은 이야기가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것은 규모에 관한 것이다. 중국은 매우 거대한 대학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의 질은 아직도 국제수준에 있지 않으며, 중국도 이것을 누구보다 먼저 인정하고 있다. 북경올림픽을 위한 시설구축이 필요할 때 중국은 영국, 유럽, 미국 등 외국인 기술자의 지원을 요청한다. 중국도 이런 취약점을 알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다. 귀하도 중국의 기술자나 건축가가 아직도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력 비교에서 규모를 첫 번째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중국에는 해결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우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은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의 전 인구를 어떻게 경제성장의 대열에 참여시킬 수 있겠는가? 농촌과 도시 인구간의 경제적 격차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무서울 정도이다. 중국 정부는 수출과 연관된 산업에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화획득이란 측면에서 이것이 더욱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교육이나 건강보험에 많이 투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중국 인구의 80%가 경제성장의 대열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듯하다. 이렇듯 중국은 매우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은 거대한 정치적 문제 또한 안고 있다. 중국은 금융기관, 법적 재산권 보호, 그리고 사법기관도 없다. 때문에 중국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현명한 지도자”와 공산당의 합법성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는 불확실성의 원천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본인은 중국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조심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혁신을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중국은 낙후상태에 있다. 지금 본인이 이와 같은 면을 지적하는 것은 중국 혐오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40년 전 중국은 매우 빈곤한 국가였으며, 내란으로 파괴되었음을 본인은 알고 있다. 본인은 지금의 중국을 비교적 안전하고, 오랜 세기를 거쳐 처음으로 미래의 희망을 가진 조용한 나라로 보고 있다. 이는 매우 훌륭한 것이며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의 원천이다. 본인은 중국 혐오자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규모와 경제성장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요소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과장이나 혼란이 없어야 한다.

[질문] 귀하의 통찰력 있는 분석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이득의 분배법칙을 고안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귀하의 고견을 듣고 싶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능력이 미국의 힘에 기여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1940년대의 미국은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제도를 창설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고정환율체제에서 변동환율체제로 이동함으로써 세계통화시스템의 법칙을 사실상 바꿨다. 그리고 1980년대의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을 범세계화 하였다. 즉, 매년 미국은 게임의 법칙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귀하는 지금처럼 세계화가 심화되는 시대에서 미국이 여전히 게임의 법칙을 변경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그렇다. 귀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세계라는 무대 위에 두 개의 기본적인 법칙을 보면, 미국의 권익에 유리한 변동환율과 WTO 규범이다. 미국 달러에 있어서 변동환율제도는 이상적인데,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되든 미국이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타 국가들만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에게 매우 좋은 제도이다.

WTO 제도 역시 미국에게 매우 좋다. 예컨대 미국이 수출하는 농산품에 대한 서유럽 국가의 대응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미국 수입품을 거부하는 여타 국가에게 “귀국은 WTO 규범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 유리하도록 매우 편향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규범을 수정하고 싶은 계기가 없다. 미국은 현재의 국제무역규범을 지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무역규범은 타국의 압력을 통해서 보다 균형적인

방법으로 바뀔 수 있다. WTO의 경우, WTO 규범은 많은 나라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 농업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 예컨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은 산업화를 이룰 수가 없으며, WTO 규범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도 없다. 오늘날 어떤 국가가 한국이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행한 것을 그대로 재연한다고 가정해보자. 수출보조, 외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적 신용제공, 승자의 선택,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수입경쟁의 억제 등 사공일 이사장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와 같은 제반 조치가 한국, 대만, 일본 등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전략이었지만, 오늘날 이러한 정책수단은 WTO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WTO는 역설적인 존재이다. WTO가 모두에게 동등한 법률적 체계를 출범시켰다고는 하나, 기득권 국가에는 통용되지만 신생회원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앞서 본인이 지적한 미국에 유리한 국제금융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국제시스템은 여타 회원국의 압력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데, 최선의 압력은 미국 달러의 대안이 되는 통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래에 유로(euro)화가 신뢰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통화가 된다면 혹은 동아시아 지역 어디에 유로화와 비슷한 통화가 있다면, 보다 균형적이고 미국의 의지에 덜 좌우되는 금융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요약한다면 개혁은 미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압력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질문] 장래에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강국이 되고 싶은 국가가 있다면, 귀하가 열거한 제반 요인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떠한 나라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답변]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등교육의 중요성뿐이다. 또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는 교육이라는 확실한 프리미엄이 있다. 모든 국가들이 고등교육이란 측면에서 미국에 뒤지고 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왜 미국이 강력한지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 간의 자유경쟁을 채택해야 하고, 대학 간의 경쟁이 허용되면 훌륭한 학생, 교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인 제도 하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이 명심할 일은 돈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떠한 신흥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는 바로 이것이다.